

LS 증권 주간 Global ESG News

주간 ESG 뉴스 2026.08.14~2026.08.21

구분	시장 동향
Energy	● 아일랜드, 태양광 발전량 사상 최고치 기록 (2026.08.14, PV Magazine) 아일랜드의 태양광 발전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전력수요의 약 3분의 1을 공급. 아일랜드의 태양광 설비는 10년 전 2MW에서 현재 2.6GW 이상으로 급증
	● 미국, 정책 지원 축소에도 청정에너지 신규 설비 사상 최대 전망 (2026.08.19, Financial Times) 트럼프 행정부의 태양광·풍력 세액공제 축소와 인허가 제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 청정에너지 신규 설비는 사상 최대인 45GW에 이를 전망.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과 세액공제 만료 전 착공 확대에 기인
Government	● 미국, EU에 ESG 공시 규정 추가 완화 요구 (2026.08.17, ESG News) 미국은 EU가 지속가능성 규제를 이미 완화했음에도, 미국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와 공급망 관련 규제가 여전히 과도하다며 추가 완화를 요구. 또한 관련 부담이 지속될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고
	● 미국 펜실베이니아, AI 데이터센터에 환경·지역사회 규제 강화 (2026.08.18, Reuters)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는 신규 데이터센터를 신속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 보호·정보공개·지역사회 동의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 AI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확대에 인한 전력요금 상승과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함
Corporations	● Equinix, 싱가포르서 네 번째 태양광 전력구매계약 체결 (2026.08.18, ESG News) Equinix 는 Flo Energy Singapore 와 체결한 거래를 통해 싱가포르 산업·상업시설의 옥상 태양광에서 최소 11.5MWp 규모의 전력을 공급받는 장기 계약을 체결. 향후 계약 규모를 최대 50MWp 까지 확대할 계획
	● CATL, 저탄소 실적 우수 공급사 우선협력 계획 발표 (2026.08.19, ESG Today) CATL은 '25년 핵심사업 탄소중립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했다 밝힘. '27년부터는 신규 협력사에 탄소발자국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고 저탄소 실적 우수 공급사에 우선 발주·장기계약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녹색조달 지침을 도입할 계획
Funds	● 캐나다 La Caisse, Brookfield와 재생에너지 기업 Boralex 인수 완료 (2026.08.17, Net Zero Investor) 캐나다 연기금 La Caisse 는 Brookfield 와 함께 약 \$6.5B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업 Boralex 인수를 완료하고 지분 약 30%를 확보. Boralex 는 북미·유럽에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하며 '30년까지 7GW 규모의 발전설비 확대를 추진 중
	● 캐나다 CPPIB, 투자기업 기후전환 대응 평가지표 도입 (2026.08.19, Net Zero Investor) 캐나다 연기금 CPPIB 는 기업의 탄소집약도와 함께 기후전환 위험·기회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여부를 평가하는 '전환 거버넌스 지표'를 신규 도입. SBTi 감축목표, TPI 평가, 자체 탈탄소 평가기준 등을 활용해 고탄소 산업 투자기업의 전환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향후 투자·주주관계 등에 활용할 계획
	● 프랑스 Ircantec, \$1.9B 규모 ESG 채권 위탁운용사 모집 (2026.08.20, Responsible Investor) 프랑스 연기금 Ircantec는 녹색채권 \$1.6B와 사회채권 \$350M 등 총 \$1.9B 규모의 ESG 채권 위탁운용사 3곳을 모집. 녹색채권 포트폴리오에는 연간 탄소배출량 7% 감축 목표를 적용하고, 사회채권은 저소득층·소외지역·여성 기업가 등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투자에 집중할 계획

자료: 언론보도, LS 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투자전략팀).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